

직지인쇄술 서양전파 추적

청주MBC 13개국 취재 다큐물 제작 내년 3월 '직지찾기' 사이클대회도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찾고, 인류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직지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5부작 다큐멘터리가 제작, 방영된다. 청주MBC(사장 박우정)는 '인류문화유산 직지'를 기획하고 이달부터 제작에 들어가 내년 10월 창사 30주년 특집프로그램으로 방영하기로 했다.

직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한 1450년부터 70여년 앞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다. 세계 2권 중 하권은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상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지', 5부 '직지나, 구텐베르크나'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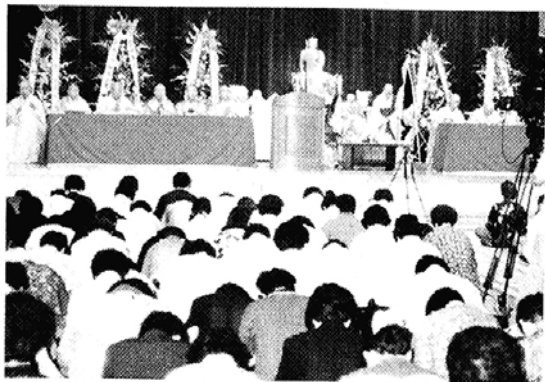
연출을 맡은 남윤성 PD는 "종이와 목판인쇄술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갔다는 연구가 정설"이라며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했던 마인츠까지 탐사하며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가능성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MBC는 또 내년 3월 '직지찾기 사이클대회'도 개최한다. 사이클대회는 청주를 출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직지 찾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획이다.

청주MBC 박우정사장은 이와 관련해 8일 조계종총무원을 방문, 사이클대회에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참석과 전국 주요사찰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대전시 대덕문화체육관에서 봉행된 불국토구현 기원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에서 삼론종 종정 대산스님이 법어를 하고 있다.

"육바라밀 실천으로 불국토 구현"

삼론종 관정수기법회 3천여명 동참

삼론종(총무원장 해공)은 7일 대전 대덕문화체육관에서 불국토구현기원 제2회 관정수기대법회를 봉행했다. 삼론종 스님들과 신도 등 총 3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대법회와 2부 관정수기법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관정수기란 전법수계할 때 또는 수도자가 임정한 계위에 오를때 사해의 물을 길어다 수계자의 정수리에 부어 계위를 인증해 주는 뜻으로 관정수기를 받는 사람은 미래에 대아라한 대보살 종래에는 부처를 이룰 큰 인연공덕을

짓게됨으로 고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복덕이 구축하게 된다고 한다.

이날 법회에서 대산 종정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법을 잘 수지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닦고 보살행을 해 불국토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해공 총무원장스님은 대회를 통해 "MF로 어려운 이때 불자다운 삶과 육바라밀 실천으로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nia.com)



○동국대는 8일 밀리미터와 신기술 연구센터와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동국대 신기술연구소 개소

양자반도체·밀리미터파 9년간 연구

올해 우수공학센터(ERC) 및 우수 과학센터(SRC)로 선정된 동국대(총장 송석구) 밀리미터파와 신기술 연구센터(소장 이진구)와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소장 강태원)가 8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갖고 출범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녹원스님(동국대학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서정욱 장관(과학기술부), 김정덕 사무총장(한국과학기술재단), 권오갑 사무처장(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운 지원

국장(과학기술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로부터 9년동안 매년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는 인공 두뇌연구의 바탕이 되는 양자물성·소자물리를 연구하며, 밀리미터파와 신기술 연구센터는 무선통신 첨단기술인 반도체 소자와 집적회로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김지연

천미희 기자

세계 최고 김지장보살상 세운다

높이 99m 금불상 구화산안에...2002년 완공

중국인에게 지장보살로 추앙 받는 교각스님의 동상이 세계 최고(最古) 규모로 건립된다. 중국 안휘성 구화산불교협회(회장 인덕)는 9일 구화산 정상 대각산사에서 교각스님 동상 건립식을 봉행했다.

종단협의회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교각스님 동상은 99m 금동불상으로 이날 기공식을 갖고 550억원을 들여 2002년 9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기 696년 신라 성덕왕의 태어난 교각스님은 24세에 중국 당나라 구도의 길을 나서 구화산에 화상사를 창건하여 중생을 교화하였다. 이후 구화산은 중국불교 4대 성지의 하나인 지장도량으로 한국불자들과 중국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각스님은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다. 정성운 기자

"北·中 종교탄압 극심" 美 국무부보고서

북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을 종교적 소수파를 탄압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라고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8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백94개국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해 밝힌 연례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으며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을 할 경우 투옥 등 엄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전통종교인 불교와 도교를 제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종교활동을 할 경우 박해와 장기 구금 및 고교소 또는 노동을 통한 개화, 그리고 수용소 수용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불교 승려들을 학대 또는 고문한 사건이 있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숙 기자

"불교 초전지 개발반대 지역발전 저해 행위"

영광군민 목사추방운동

백제불교도래지 사업에 반대하는 기독교목회자 추방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영광군 목회자추방 8만군민 추진

위원회는 '백제불교도래지사업'을 반대하는 개신교 목회자 추방 8만군민 서명운동을 1일부터 전개했다. 영광군 목회자 추방 8만군민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조남식 박동필)는 8월 18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사업을 특정종교 성역화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개신교 김포 목사를 지역문화사업 개발저해자로 규정했다. 김원우 기자

부산 불교복지보건대 2기 간병인 40명 입학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해도)은 7일 제2기 복지보건간병봉사자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학장 해도스님, 부학장 황보신교수를 비롯 전 교직원과 40명의 신입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입학식에서 해도스님은 "현영사를 통해 '마음이 건강한 불자가 되어야 진정한 간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갖추어진 불성이 비추어 동체대비의 자비심으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3개월 과정으로 개설된 2기 복지보건간병봉사자과정은 이날 황보교수의 '인간의 이해 및 직업인의 자세' 첫강의를 시작으로 보건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천미희 기자

반야사 문화센터 백화루 기공법회

총복 영동 반야사(주지 성제)는 5일 불교문화센터인 백화루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석굴암주지 종상스님 영동군 사암연합회장 해송스님 박완진 영동군수 정태호 영동군의회장 박희택 참양건설회장장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법대 기공식 시삽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우리절 불가 옥천시 보장각



○옥천시는 말사로는 최초로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심보를 소중하게 된다. 보장각앞에서 주지 호암스님.

성보 소장 유물전시관 건립

탱화등 171점 전시 내달 11일 만등법회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의 상조사가 창건하여 화엄십대사찰의 하나였던 옥천사(주지 호암)가 천년고찰의 문화유산을 영구보존할 유물전시관 보장각을 건립하고 있다. 또 백성들의 번영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던 축성전도 복원된다.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고산스님초청 만등법회를 갖고 첫 문을 열게될 보장각은 지하 1층 80평, 지상 2층 1백평규모로 한옥양식이며, 입자고려명반자(보물 제495호) 청동은입사향로(유형문화재 제59호)와 괘불 지장탱화 금강경목판 14매 성철불공필자목판 3매 석사사물목록기판 1매 목석통 소지사교수 1백8점과 고문서 63책 등 많은 성보가 전시된다. 옥천사는 1994년 소장품 119점을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아 말사로는 처음으로 유물전시관을 짓게 됐다.

원래 어필각(御筆閣)으로 불리웠던 축성전(祝聖殿)은 일제시대 강제 철거된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2칸 42평규모의 전통 한옥양식으로 건립됐다. 현재 인조임금이 직접 쓴 현판과 하마비(下馬碑)가 남아있다.

경내에 달고 맛있는 물이 끊이지 않고 솟는 샘이 있어 옥수(玉水)라 했는데 이를 유래로 절이름까지 옥천사(玉泉寺)라 했다. 산사 주위 32필지가 연화팔경으로 경남도가 지방기념물로 지정했다.

또 옥천사에는 '서봉인오방공탑'이 있는데 1879년 서봉스님이 60여세의 나이로 청련암에 주석하며 이제까지 계행을 못키고 수행도 못한 것을 참회한 뒤 대소변도 방에서 보며 기도도 않은채 오직 나무아미타불 육자염송으로 정진하다 좌탈입망했는데 대비식 저녁에는 산내전역에 방광이 나타난 것을 기념하여 현 산문지수지위 바위벽면에 서봉인오방공탑이라는 글귀를 새겼다.

옥천사는 청담스님의 출가지 인연으로 문도들이 주석하며 1981년부터 청담대중사 사리탑과 비석염송이 시작으로 종강불사가 시작돼 일주문(1984년) 조사전(1985년) 사적비(1987년) 사천왕문(1989년) 범종각(1990년)등을 완공하여 현재 24종의 당우를 갖춘 대가람이다.

옥천사는 앞으로 극락암등 폐사한 9개 암자와 연화사등 4개암사, 물레방아등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문의 0556) 672~0100. 김원우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랄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즈도 김희균 합장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콘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러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총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서 있습니다. 저는 신경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총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밀로 저평가

창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밀로 저평가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